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이연숙\* · 채정현\*\* · 유태명\*\*\*1) · 왕석순\*\*\*\* · 이은희\*\*\*\*\* · 김하늬\* · 최민지\*\*

고려대\* · 한국교원대\*\* · 경상대\*\*\* · 전주대\*\*\*\* · 원광대\*\*\*\*\*

---

## 2009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Relation to the Character Education

Lee, Yon Suk\* · Chae, Jung Hyun\*\* · Yoo, Tae Myung\*\*\*1) · Wang, Seok Soon\*\*\*\* · Lee, Eun Hee\*\*\*\*\* · Kim, Hanui\* · Choi, Minj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ious literature in home economics and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2009 revised curriculum in relation to character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1) the literature review 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elf-management and consumption life, food, clothing, and housing life area is critically discussed in relation to character education, and 2) curriculum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are analysed in relation to the six pillars(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and citizenship) of character education proposed by Josephson Institut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verified by five experts in home economics content areas. Specific results of relation between home economics contents/achievement standards and six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are as follows.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is most closely related with all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among other content areas. In Self-management and consumption life areas, self-management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responsibility element; and consumption life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hip element. In food area, health diet and eating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trustworthiness, respect, and responsibility elements; and eco-friendly diet and food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six elements. In clothing area, clothing and

---

1) 교신저자: Yoo, Tae Myung, 551 Jinjudaer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Republic of Korea

Tel: 055-772-2241, Fax: 055-772-2249, E-mail: franco@gnu.ac.kr

2) 본 연구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self-expression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trustworthiness, caring, and citizenship elements; and eco-friendly clothing and clothing reform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responsibility, caring, and citizenship elements. In housing area,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sub-area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responsibility and caring elements; and sustainable living and decorating living space sub-area is very closed related with trustworthiness, fairness, and citizenship elements.

**Key words:** 가정과 교육과정(home economics curriculum),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인간발달과 가족(human development and family), 자기관리와 소비생활(self-management and consumption life), 식생활(food life), 의생활(clothing life), 주거생활(housing lif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고시된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a)을 보면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을 추가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등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배경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증가하고 그 양상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 이상의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현상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숙 외(2012)는 청소년의 문제를 지식 교육에 치중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국가 중 2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OECD 국가 중 35위로 저조하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기에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 편중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정서적 압박이 되어 여가시간이 줄고 운동 및 수면 시간의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는 청소년 인성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인성 문제는 통계적 수치에서 그리고 질적 양상에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

개발원이 2012년 1월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의 학생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십 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임신, 학교 폭력, 자살의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노출 등의 가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학교와 가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의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을 1980년의 것과 비교해볼 때 이혼 건수는 5.2배, 조이혼율은 4.2배 정도 증가하였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학교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Ji & Lee, 2012).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에 전국의 16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총 상담건수 중 31%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2005년에 비해 25.2% 증가한 것이다(유계숙, 장혜경, 전혜정, 김윤정, 민성혜, 2009). 하지만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에 학교와 가정의 양 날개를 가지고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2012년 7월 개정된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어, 도덕, 사회 교과목의 학습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의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선의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천교과이기에 인성교육을 담당할 가장 적합한 교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정교과는 인성교육의 요소를 모든 내용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교과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지 고찰하고,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의 요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교육 현장에서 교수설계와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둘째, 가정교육학계에서 인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이를 기초로 인성교육을 위한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인간발달과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관련성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알아낸다.

둘째,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인간발달과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에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인성교육 요소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상기된 두 연구내용을 각각 논의하지 않고,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별로 선행연구의 고찰과 인성교육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을 위한 덕 목록

인성이란 영어로 심리학분야에서는 personality(인성 혹은 성격)로 철학분야에서는 character(인격)의 의미로 다소 다르게 사용된다. 심리학분야에서는 인성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성격(personality)을 의미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가치 지향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인격(character)을 의미한다(김태훈, 1997). 손봉호와 김해성(1997)은 카(Carr, 1991)의 책 'Educating the Virtues'를 '인성교육론'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그의 책에서 인성이란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의 개념은 서양에서는 심리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 반면 동양에서는 성리학이란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성리학의 인성이론에서 보면 인성을 '심(心)'의 개념에서 찾았는데, '심은 성(性)과 정(精)을 포괄한다'. 성(性)은 본성(本性)을 의미하기에 인성이란 '타고난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궁달화(1999)는 인성을 성품(性品)으로 정의하였는데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며 성질을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의 바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란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의 바탕을 말한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지, 정, 의로 구성되기에 인성교육이란 지, 정, 의의 심성을 교육하는 것이고 사람됨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Lee 외(2011: 17-19)의 연구에서는 인성을 도덕적 자질이 포함된 개인의 사고, 태도, 행동 특성의 의미로 사용함을 밝히고, 영어 표현은 character로 설정한 바 있다. 'Character'는 모종의 도덕적 자질을 의미하고 미국의 'Character Education'에서도 인성은 도덕적 성격을 내포하는 인격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서의 인성은 도덕적 의미의 함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덕 윤리학자들은 Character는 습관, 성향, 태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덕이 있을 수도 부덕할 수도 있는 어떤 성향이나 특질을 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Lee 외(2011: 19)는 인성(character)을 "선천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후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적 역할도 개입된 안정된 도덕적 성향"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좋은 인성과 덕 있는 인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인성교육이란 학습자의 타고난 심성을 발견하고 그 심성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꾸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정의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보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도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인성교육의 구성요소와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Lickona(1992: Chung, 2003 재인용)는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및 도덕적 행동을 인성의 구인으로 보았다. 도덕적 지식에는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의 이해, 조망수용, 의사결정, 도덕적 추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며 도덕적 감정에는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를, 도덕적 행동에는 능력, 의지 습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허경철과 조난심(1994)은 인성교육의 요소를 기본생활 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 위생, 물자절약), 자아확립(근면, 성실, 자주, 정직), 효도와 경애(기본예절, 효도, 경애), 공동체 의식(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Lee(2001)는 허경철과 조난심(1994)이 제시한 인성요소에서 효도와 경애를 공동체 의식에 포함시켰다.

Cho 외(1998)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덕목을 민주시민의식(준법정신, 봉사정신, 책임감, 정의감, 협동정신,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존중의식(권위의 존중 및 수용, 사랑, 배려, 예의범절, 효, 정직, 신뢰), 자기존중의식(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통제, 자기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Son(1998)은 자기사랑, 덕, 타인이해·배려, 민주시민(질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국제이해(다문화이해 및 지구촌 의식), 건강 등으로 손꼽았다.

Park 외(2001)는 인간과의 관계적 삶에서 요구되는 덕목과 국내의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는 덕목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총 18개의 도덕적 덕목을 선정하여 이를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Ryu와 Jin(2006)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

하고 종합된 덕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덕목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덕목들을 자기, 타인, 자기·타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총 21개로 제시한 바 있다.

Kang 외(2008)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인성의 개념을 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공생인(관계성), 도덕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인격인(도덕성), 인간의 모든 측면을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전일성),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영성인(영성), 온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생명성), 삶과 상황을 재창조하는 창의인(창의성),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민주시민성)으로 보았다. 또한 21세기 인성교육은 파편적이고 표피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yun 외(2009)는 인성교육의 요소로 예절, 타인배려, 준법, 정직, 책임, 바른생활습관, 성실, 질서, 공동체의식, 협동, 자기주도성, 생명존중, 정의, 관용, 용기, 독립성, 인내심, 열린 마음, 우정, 애국으로 손꼽았다. 한편, Moon과 Chae(2001)는 인간관계 덕목(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우)과 인성판단능력(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으로 나누어서 인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ung(2003)은 실과 가정과 영역에서 구현해야 할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민주시민의식(준법정신, 봉사정신, 책임감, 정의감, 협동정신,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존중의식(권위의 존중 및 수용, 사랑, 배려, 예의범절, 효, 정직, 신뢰), 자기존중의식(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통제, 자기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Wang(2004)은 가정과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인성교육의 덕목을 평등 및 인권존중, 환경보호(자연·자원보호, 재활용), 보살핌(자신, 자비, 용서, 우애, 사랑, 희생, 양보, 대화, 타협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Wang과 Kim(2011)은 가정과교육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과 관련된 기능적 영역을 다수 포함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돌봄’이라는 덕목을 강조하였다.

Wang과 Kim(2011)은 가정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실천사

레 연구에서 인성교육의 덕목을 크게 자기영역, 타인영역, 공동체영역(세상)으로 분류하고 Kang 외(2008)가 제시한 7가지 인성요소(관계성, 도덕성, 전일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민주 시민성)를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인성교육 덕목의 준거 틀로 채택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덕목에 ‘감사’ 덕목을 추가하여 숙고(성찰), 감사, 돌봄을 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주요 덕목으로 정하고 가정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관련내용을 상 세화하여 제시하였다.

Park과 Kim(2010)은 가정과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인성요소로 신뢰/정직/약속, 협동/배려/공정, 책임(감)/소유, 의사결정능력, 실천력, 자율성,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글로벌 역량, 진로개발능력, 환경친화능력 등 11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성교육 요소에 대한 상당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덕목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덕목이 위상과 체계 없이 배열되어 가정과 수업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대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덕과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덕윤리 학자들이 강조해 온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을 대별하여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Lee 외(2011)의 연구에서는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미국의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가 제안한 진실성(Trustworthiness),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공정성(Fairness, 정의), 배려(Caring), 시민의식(Citizenship)의 여섯 기둥 덕목(6 Pillar Virtues)을 학교인성교육에 적절한 덕목으로 평가하였다. 이 덕목은 1992년에 조셉슨 연구소 주최로 미국 콜로라도에서 윤리전문가, 교육자, 청소년 서비스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서 종교, 정치, 사회적·경제적 차이를 초월하는 핵심 윤리 가치를 개발한데서 비롯되었다. 조셉슨 연구소에서 제안한 여섯 기둥 덕목은 학생들에게 접근가능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의 가치가 아닌 여러 가지 가치를 토대로 윤리 기준을 세워서 하나의 윤리 원칙으로 다른 윤리를 희생하지 않기에 좀 더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osephson Institute, 2013). 그 외에도 최근 가장 포괄적이고 새롭게 등장한 배려교육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배려와 존중, 책임을 포함하면서도 사회

적인 시민성,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와 진실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요소로 적합하다.

Lee 외(2011; 28-29)는 여섯 기둥 덕목에 대해서 진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실성은 정직하고 진솔하며 속이거나 흠치지 않는 것이며 공동체를 배신하지 않으며 인간과 생명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고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다. 존중은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 책임은 응답하는 능력(ability to respond)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해보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태도이다. 책임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태도로 끈기와 인내와 절제가 요구된다. 공정성 또는 정의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경우 있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이다. 배려는 자신과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면 자기에이고 자신의 잠재성을 계발하는 것이 된다. 배려는 주로 타인에게 행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친절, 호의, 자선, 이타성이 된다. 배려는 타인과의 협력과 협동으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태도이다. 시민의식은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 자율성, 자발성, 정체성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이고 타인과 협동하고 민족애, 조국애, 통일과 같은 민족적 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하며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Table 1 참조).

## 2.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육학의 방향

Brown & Paolucci(1979)는 가정교과는 사명지향적인 교과이며 실천 교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존중과 돌봄 그리고 이타적인 성숙한 개인과 가족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세 학문의 유형 즉, 순수 학문, 사명지향적인 학문, 해석적 학문 중 가정교육학을 가족을 돕는 사명을 지닌 사명지향적인 학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교육학은 교육을 통하여 가정학의 사명인 개인과 가족의 세 행동체계(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를 구축하여 가족의 문제를

Table 1.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Cardinal Virtues	Subordinate Virtues
Trustworthiness	Build trust and credibility with integrity (consistency between beliefs, words and actions), honesty (truthfulness, sincerity and candor), promise-keeping, and loyalty (fidelity to family, friends, and country).
Respect	Honor the worth and dignity of all individuals. Treat others the way you would want to be treated. Act courteously, civilly, peaceably, and nonviolently. Be tolerant and accepting of differences. Avoid rude, offensive, and abusive words and actions.
Responsibility	Be accountable for your words, actions, and attitudes. Exercise self-control. Strive for excellence and self-improvement. Plan ahead. Set a good example for others. Be self-reliant, prudent, proactive, persistent, and hard-working.
Fairness	Be consistent, open, and treat all people equitably. Consider all sides and make decisions on the facts without favoritism or prejudice. Play by the rules, avoid careless accusations, and don't take undue advantage of others. Pursue justice and condemn injustice.
Caring	Be kind, compassionate, empathetic, charitable, forgiving, and grateful.
Citizenship	Obey laws in good faith. Do your share to improve the well-being of fellow citizens and the community. Protect the environment, volunteer,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democracy by staying informed and voting.

해결하도록 돕고 학습자들이 교육받은 자다운 인격을 지니도록 하는 데 그 사명이 있기에 인성교육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과이다.

유태명과 이수희(2010)는 실천교과에서의 실천 개념을 Habermas(1973)의 *Theory and Practice*를 기초로 고전적, 근대적, 하버마스의 실천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 실천학에서 실천(praxis)은 첫째로, 선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행동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의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선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추구에 있었다. 둘째로, 실천(praxis)은 사회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활동이다. Praxis는 정치와 윤리의 내적 연관성 가운데서 수행되는 인간 활동으로 보았다. 셋째로, 실천(praxis)은 실천적 지혜(phronesis)에 연결된 활동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신중한 사려성이다(Kim, 2006: 86). 근대적 실천(praxis)은 첫째로, 규범적 요소와 단절된 활동이었다. 근대에 와서 실천(praxis)은 고전적 실천학에서 강조해온 윤리성은 간과되고 그 어떤 수단도 권력유지나 생존보호란 유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당화 되었다. 둘째로, 실천(praxis)은 기술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활동이었다. 근대 사상가들은 도덕적 조건이 아닌 생존이란 실제적 조건에 대해 묻는다. 하버마스는 고대 실천 개념에서의 과학성 결여와 근대 실천 개념에서의 규범성 무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적 실천(praxis)을 통하여 규범적 방향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조화시

켜 상호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Kim, 2006). 규범적 방향성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언어 행위로부터 보장된다고 보았다. 모든 언어 행위에는 이해도달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고 이해에 도달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Habermas(1971)는 이해를 통한 이성적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실천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과학적 엄밀성은 '근거제시'와 '비판가능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의로써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Habermas, 1984).

하버마스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의 장인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재생산 된다고 보았다. 생활세계는 개인, 사회, 문화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체계가 비대하여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은 타인과 다른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의 근원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규범을 만들어 가며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 생활세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힘은 생각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 다른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 구체적 상황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비판적 관점에서 행동의 방

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Yoo, 1991).

중세의 실천 개념은 규범성이 무시되었기에 현대의 가정교육학이 지향하는 실천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므로 실천교과로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실천교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실천 개념을 지향하면 인성교육은 윤리적 행동, 정치적 행동, 실천적 지혜의 덕이 관여하는 행동에,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타인과 다른 집단, 사회)과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행동, 행동의 지속성에 역점을 둘 수 있다. 허버마스의 실천의 의미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일상생활의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에서 인성교육의 요소를 다루고,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자신, 타인, 다른 집단, 사회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생각과 관행에서 벗어나 이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교육할 것이다. 즉, 규범성과 과학성을 확보한 의사소통적 실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에 역점을 둘 것이다.

허경철과 조난심(1994)은 인성교육의 지도원리로 통합적 접근, 지속성, 관계성, 자율성, 체험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가정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지, 정, 의, 행의 통합을 교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며 특히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내용과 활동을 통하여 생활과 통합할 수 있다. 도덕적 품성이 나타나는 행동은 일회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의하여 습관화될 수 있을 때 일상생활의 장에서 좋은 인성에 기초하여 지속될 수 있게 된다.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은 자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교과이다. 자율성은 가정교육학의 사명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개인 스스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가정교육학 철학의 중심에 놓여 있다. 체험의 원리는 실천교과라는 교과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생활의 장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사고 능력은 생활의 장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때 신장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가상의 상황을 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가정교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정교육학이 인성교육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교육과정은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Wang, 2011).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의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의 핵심 역량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가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교육이 “...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다양한 현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특히 “...가족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각종 범죄 및 자연 재해로 인해 정신 건강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터하여 볼 때, 가정과목이 다른 과목과 차별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특히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학습경험과 인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성교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성격과 목표에서 고시하고 있는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양육을 통한 돌봄능력의 확대’, ‘전 생애설계를 통한 생활의 자립’, ‘다문화적 가치의 이해’, ‘주도적인 삶의 영위’, ‘배려와 나눔’, ‘지

속가능한 사회' 등의 핵심적 주제들과 '자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한 총 7가지로 고시된 핵심역량들은 학교 교육 전체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적 주제나 역량과 동일하다. 이것은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정과목이 교과교육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교육과정과 같은 공식적인 국가수준의 문서에서 표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Table 2>는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교육체계이다. <Table 2>에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교육내용이 자기-가족-사회의 순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자신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제 1차적인 공동체인 가족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와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및 가족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발달의 문제, 정체감의 문제, 소비의 문제, 교육관계의 문제, 진로 문제, 스트레스 문제 등-를 폭넓게 다루면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은 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교육을 통한 개입이다.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청소년 문제가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생활'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생활의 기반인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가족의 안정과 발달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의 사명을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내용을 교육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랑, 결혼, 배우자 선택, 부모됨, 자녀 양육, 노인기 발달, 부양, 노후 준비와 같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청소년 시기부터 인식하여 미리 자신의 생애에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애설계와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적인 가치의 수용,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남녀가 함께하는 양육, 자립적인 노후생활의 내용을 전반에서 다루면서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도교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신설하고 가정생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하면서, 청소년 개발, 가족의 성장, 나아가 청소년 및 가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최근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긍정성-배려, 나눔, 돌봄 등'의 철학을 교과의 성격에서 강조하였는데, 교육내용에서는

Table 2. Contents of 2009 N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Curriculum Contents of Home Economics (Middle school level)		Curriculum Contents of Home Economics (High school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nderstanding Adolescen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olescent development</li> <li>· Gender and companionship in adolescence</li> </ul> </li> <li>○ <b>Life of Adolescen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ng a healthy diet and eating</li> <li>· Clothing and self-expression</li> <li>·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li> </ul> </li> <li>○ <b>Adolescence Self-managem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me and stress management for Adolescence</li> <li>· Adolescence Consumption Life</li> <li>· Adolescent welfare services</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nderstanding of the Famil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nging families and healthy families</li> <li>· Family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li> </ul> </li> <li>○ <b>Practice of Eco-friendly Family Lif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ng an eco-friendly diet and food</li> <li>· Eco-friendly clothing life and clothing reform</li> <li>· Sustainable living space and decorate the living space</li> </ul> </li> <li>○ <b>Career and Life Planni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eer exploration and life planning</li> <li>· Work and life balance, Family life and welfare services</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ow Fertility · Aging Society and Famil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ve and marriage</li> <li>· Parenting and child care</li> <li>· Independent aged life</li> </ul> </li> <li>○ <b>Happy Family Life Culture Created by Famil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lthy family and sustainable consuming life</li> <li>· Caring and sharing clothing · food · housing life</li> </ul> </li> </ul>

이러한 ‘긍정적 정서와 행동’에서 더 나아가 긍정심리학이 최종 목적으로 설정한 ‘행복’이란 주제를 궁극적 목적으로 강조하여 반영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인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는 사회적 적응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인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교과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가정과학’ 과목에서는 “... ‘가정 과학’은 고등학교 생활·교양 선택 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영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의 역량을 길러주며...” 라고 고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데, 인간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행복을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는 가정과목이 유일하다. 실천교과를 지향해 온 가정교과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들인 먹는 것, 입는 것, 사랑, 갈등과 같은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미 ‘행복’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How to Happy)’을 가르쳐 왔다(Wang, 2011). 이처럼 적응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인 인간 행복의 근원적 가치와 그 방법론을 다루는 가정교과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분석과 평가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전통적 내용 영역인 인간발달 및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이 인성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선행연구 통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가정교육학 내용영역(인간발달 및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에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단원의 학습 내용 및 성취기준이 <Table 1>에 제시된 조셉슨 연구소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여섯 가지 요소(덕목)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의 관련

성 수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밀접한 관련이 있음’, ‘어느 정도 관련 있음’의 세 수준으로 정하였다. 미국의 조셉슨 연구소가 제시한 여섯 가지 덕목은 성, 인종, 연령, 정치나 종교를 초월한 공통의 가치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기에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Josephson Institute, 2013). 이 여섯 가지 덕목은 핵심 윤리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각각 그 내용이 달라서 각 덕목별로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인간발달과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을 분석하는 것은 가정교육학과 인성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자들은 분석과정에서, 2009 개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중영역의 성취기준과 여섯 가지 덕목과의 관련성 수준을 서론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함께 일치된 내용으로 정하여서 분석 결과의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분석된 결과는 가정학 내용 전공 교수 5인으로부터 타당성을 평가 받았다.

타당성 평가를 받기 위한 조사도구는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과 인성교육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동의 정도를 5점 척도에 의해 점수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가 받은 타당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23점으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과 인성교육

##### 1)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 인성교육 선행연구

인성교육은 “학습자의 타고난 심성을 발견하고 그 심성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꾸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므로,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은 인성교육과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Wang(2012)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청소년의 이해’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자기조절의 생활역량이 함양되어 인성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협력과 리더십의 공동체 의식, 동기형성과 목표설정의 자기성취, 상황대처의 생활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가정과에서의 인간발달 영역과 관련된 수업에서 청소년이 학교폭력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대항하여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인 생활역량이 개발될 수 있어서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im과 Cho(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수업을 통하여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집안일 참여의 변화를 수업 전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역할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미분화 집단이 감소하고 양성성 집단이 증가하였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적 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일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업 전보다는 수업 후에 집안일의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You와 Cho(2011)는 가정과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훈련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며, 갈등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집단-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설계 연

구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서의 인간관계 관련 단원의 경우 수업 뿐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한 개입을 통하여서도 학습자와 관련된 개인의 인성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Lee와 Cho(2011)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기의 성공적인 준비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문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에 대한 지식, 자녀로부터의 부양 의식, 노후생활준비도, 노인복지서비스 정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가사실업계 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높았고, 수업 방법에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o(2012)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족돌보기’ 단원을 학습 한 이후,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즉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타인배려(도와주기, 자선, 친절, 희생), 협동(합동, 책임감), 공감(동정, 관심, 연민, 위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가정교과의 학습이 미래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Table 3.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Unit	Sub-unit	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Understanding Adolescence	Adolescent development	●	●	●	●	●	◎
	Gender and Companionship in adolescence	●	●	●	●	●	●
Self-management of Adolescence	adolescent welfare services	●	●	●	●	●	●
Understanding of the family	Changing families and healthy families	●	●	◎	◎	●	●
	Family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	●	◎	●	●	◎
Career and life planning	Career exploration and life planning	◎	○	●	○	○	◎
	Work and life balance, Family life and welfare services	●	●	●	●	●	●

Note. ● very closely related, ◎ closely related, ○ related

그리고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증가하였고, 이들 변수가 친사회적 행동을 29.1%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 함양에 가정과수업이 관련되며, 가정과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의 건강한 인간발달이 촉진되어 가정과교육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과임을 시사하였다.

## 2)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 인성교육요소 관련성

2009 개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진통적인 다섯 가지 내용영역을 중심으로 조셉슨 연구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발달’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영역의 인성교육과 관련되지만,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와는 특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영역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발달의 결과에 대하여 진실한 태도를 취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공감과 배려를 보여 줄 수 있는 인성을 키울 수 있다. 이 중영역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치기에 시민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동성 및 이성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이 영역에서는 조셉슨의 여섯 가지 주요 덕목 모두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매우 밀접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동성 및 이성친구 관계의 교육내용을 다루면서 타인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 친절하고, 배려를 보이는 것, 열린 마음과 경청하기를 통한 공정하게 친구를 대하는 마음, 2차 성징 발현에 따른 책임있는 성행동의 중요성,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족’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저출

산·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 형태,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가치관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및 세대 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이다. 여기에서는 진실성과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관련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출현하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이를 수용하여 존중하며, 공감을 갖고 배려를 보여줄 수 있으며, 감사를 표하거나 용서를 표하는 것, 가족에 대한 충성 및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충성, 협력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요소를 다루면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수행할 수 있다.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이를 친구, 교사, 이웃 등 다양한 관계에 적용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이다. 여기에서는 진실성, 존중, 공정성, 배려에 포함된 다양한 하위덕목들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타인 존중이나 배려, 정직성, 공정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성은 가족에서 학습하게 되는데,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요소를 가지는 이 중영역의 학습은 인성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다.

가족복지와 관련된 영역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파생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생애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과 경제적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이 중영역에서는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하위덕목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영역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영역의 성취기준은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생활복지서비스를 찾아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이다. 여기에서는 조셉슨의 여섯 가지 주요 덕목 모두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매우 밀접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 21세기의 모든 남, 여는 직업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한 태도와 행동,

책임있는 태도와 행동,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기본이 된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주요 덕목에 포함된 모든 하위덕목이 이 영역의 학습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 또 ‘가족복지’의 내용은 시민의식을 기르는 주요한 인성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탐색하여 자기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이 영역에서는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가지 주요 덕목 모두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매우 밀접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식과 자기통제, 자기수양, 좋은 모범이 되는 것 등과 관련된 다양한 책임의 하위덕목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은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관련한 진실성과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공정성, 또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요소들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주의나 가족이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도록 이웃과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책임있게 돌보며, 이를 친구와 이웃, 사회로 확대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인성교육의 덕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발달은 물론 사회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교육이 청소년의 가장 친숙한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임을 시사해주었다.

## 2.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과 인성교육

### 1)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 인성교육 선행연구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시간·스트레스’와 인성교육, ‘소비생활’과 인성교육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인성교육의 하위요소까지 포함하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간·스트레스와 인성교육

시간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정범모, 2006)에서는 친자시간(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은 자녀의 인성발달 및 정서발달에 기초가 되며 모든 인성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가족문화를 통해 습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가족문화의 반성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하여 인성교육에 있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Kim과 Lee(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셀프리더십 하위요소인 의사소통기술, 학습능력기술, 집단능력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여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된 자기관리 단원의 교육은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동 덕목 중 존중 혹은 책임, 덕목 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Min(2004)의 연구에서는 우울, 충동, 우울 및 충동, 일반 등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명상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충동성을 지닌 집단의 충동성이, 우울 및 충동성을 지닌 집단의 우울감과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중학생의 인성교육과 스트레스 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 및 충동을 지닌 학생들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성교육은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Kim & Park, 2000)를 살펴보면 중고생들은 가정생활보다 학교생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정생활스트레스에는 가정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에서는 성별, 성적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져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 요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 (2) 소비생활과 인성교육

Korea University Institute Education Research(1997)에서는 “전환시대 청소년의 소비문화와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소비문화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성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바람직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건전한 문화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물질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소비 및 생산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위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데 첫째, 우리경제 바로알기, 둘째, 덜 쓰고 아껴쓰기, 셋째, 다시 쓰고 바꾸어 쓰기, 넷째, 식생활 바로하기, 다섯째, 사교육비 줄이기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물질문화, 생산교육에 치중했던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소비문화와 관련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Lee, Oh & Chae, 2012)에서는 중학생들의 휴대전화 소비생활 만족도는 휴대전화의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활용만족도)보다 부모 또는 교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는 만족도(관계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에 소비문화에 대해 배웠다고 인지할수록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휴대전화를 더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휴대전화를 윤리적으로 사용할수록 휴대전화의 관계만족도가 높았으며, 휴대전화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휴대전화 문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휴대전화에 관한 활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 배려와 관련된 요소가 강조될수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비생활과 관련된 인성교육은 청소년을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자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Kim, Choi, & Jang, 2008)에서는 어머니를 통한 시민의식교육이 증가할수록 휴대전화의 구매, 사용을 포함한 전체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의식이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 덕목 중 한 요소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인성교육과 올바른 소비생활 간에는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의 환경친화적 의복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Kim & Shin, 2012)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이타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의식을 가질수록 환경친화적 의복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주의 가치관과 환경친화적 소비의식은 인성교육의 하위요소인 존중, 책임, 시민의식과 관련된다고 볼 때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인성교육은 친환경적인 의복 구매행동과 같은 소비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과소비 성향에 관한 연구(Lee & Lee 2004; Lee & Kim 1997; An & Park, 2000)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과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인성교육의 책임 덕목의 부분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과소소비성향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은 인성교육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 인성교육요소 관련성

2009 개정에 따른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은 청소년의 자기관리 대영역에 나타나 있으며 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에서는 청소년의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가)청소년의 시간 및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다’와 ‘(나)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다(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이러한 성취기준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조셉슨 연구서의 여섯 기둥 덕목 중에서 제시한 덕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목과 관련되어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관리' 부분은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의 여섯 기둥 덕목 중 책임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나타난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으며~'와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제를 평가하여 해결~'은 책임 덕목 중 할 일 할 것, 끈기있게 해볼 것, 자기통제, 자기수양 덕목의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관리' 중영역 중 시간관리 소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시간을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계획하여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책임 덕목의 할 일을 할 것, 미리 계획할 것, 끈기있게 해볼 것, 자기 통제, 자기 수양,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할 것 덕목의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중영역에 속한 스트레스 관리 소영역에서 다루는 적극적인 스트레스를 관리 방안에 포함된 문제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을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책임 덕목의 자기 통제, 자기 수양,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할 것 덕목과, 존중 덕목의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기, 화남·모욕·반대에 평화롭게 대처할 덕목과, 배려 덕목의 감사를 표할 것, 용서할 것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소비생활' 중영역 부분은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 덕목 중 시민의식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영역에서는 우선 청소년기의 소비특성

과 소비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충동소비, 과소비, 과소비, 동조소비의 문제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면서 바른 소비행동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중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할 것 덕목과, 책임 덕목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좋은 모범이 될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현재의 소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면서 미래사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중 환경을 보호할 것 덕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을 위한 인성교육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 중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중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할 것,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덕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중 환경을 보호할 것 덕목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책임인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 의견을 제시할 책임,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자신의 소비생활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책임, 단체를 조직할 책임등과 소비자문제의 해결 절차와 방법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할 것, 협력,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것, 좋은 이웃이 될 것 덕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책임 덕목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좋은 모범이 될 것 덕목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고, 자연환경을 보호 할 책임은 시민의식 덕목의 환경을 보호할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인성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을 위해서는 상품의 구매, 사용, 폐기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하는 성숙한 소비생활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할 것, 협력,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환경을

보호할 것과 책임 덕목 좋은 모범이 될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인성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관리’와 ‘소비생활영역’과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덕목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영역은 책임 덕목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존중과 배려 덕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영역은 주로 시민의식 덕목의 하위 덕목 인성교육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고 책임 덕목의 하위 덕목을 위한 인성교육 내용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식생활영역과 인성교육

#### 1) 식생활영역 인성교육 선행연구

식생활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식습관과 인성, 가족식사 참여와 인성,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한 식생활 영역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식습관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대부분이다. 연구 주제는 학생의 식품기호도와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Kim, 2005; Min, 2005; Kim & Kim, 2007)와 식습관과 인성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Yi & Chyun, 1989; Bae, 2004)로 이루어졌다. Kim(2005)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식품기호도와 성격 특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인성특성이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탕, 초코렛, 탄산음료의 섭취가 적었다. Min(2005)은 초등학교의

식생활 태도와 인성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식품 기호도가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등 전반적인 인성이 좋았으나 활동성은 낮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이 양호한 집단은 불량한 집단에 비해서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등의 인성점수가 높았다. 균형잡힌 식생활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 즉 정서 발달과도 뚜렷한 상관이 있었다. Yi와 Chyun(1998)은 초등학교의 식습관 태도와 인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식습관이 좋을수록 아동은 활동성, 사회성, 책임감, 사려성, 우월성이 높게 나타났다.

Kim과 Kim(2007)은 중학생의 성격유형과 식습관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성격 유형이 외향형은 내향형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인식이 자아효능이 높았다. Bae(2004)는 중학생의 식습관과 인성특성을 조사하였는데, 녹색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의 섭취를 잘 할수록 대분의 인성특성이 높게 나타났고, 인성특성 중 성실성은 식습관 문항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은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과 따뜻함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족 구성원에서의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게 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 교육 실천의 날’로 정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밥상머리교육’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b). 밥상머리 교육은 학생이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은주, 김정원, 2012).

Table 4.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self-management and consumption area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Unit	Sub-unit	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Adolescence Self-management	Time and stress management for Adolescence		○	●		○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			●

Note. ● very closely related, ◎ closely related, ○ related

가족 식사 참여와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었다. 연구 주제는 가족식사 참여와 심리상태를 조사한 연구(Lee, Lee, & Oh, 2009), 가족식사 참여도와 인성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Kim, 2011), 그리고 가족식사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Cho, 2007)가 있다.

가족 식사 참여와 인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Lee 외(200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식사 참여와 심리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할수록 덜 외롭게 느끼고 덜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 Kim(2011)은 가족식사 참여도가 식습관과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 시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개방성, 지성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식사를 자주하는 집단일수록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식탁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족식사를 하면서 TV시청을 적게 하였다. 가족식사에 대한 태도에서 가족식사 횟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식사가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인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Cho(2007)의 연구에서 가족식사의 횟수가 높을수록 중·고등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성교육을 위한 식생활 영역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Moon과 Chae(2001)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천적 추론을 적용한 식생활 영역 수업이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이 수업은 학생들의 인성적 도덕성(책임, 건전, 신뢰성, 준법성, 정직성) 중 정직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

Chung(2011)은 초등 실과교과 중 균형잡힌 식사하기, 간단한 조리하기 등의 식생활 영역에서의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시키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 발표 정리하면서 이타성, 개방성, 자기존중감 등의 인성을 키울 수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토의하면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여 성실성, 개방성, 사교성, 적극성, 이타성 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Ko와 Kim(2012)은 실천 문제 중심의 녹색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식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 요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보호하기, 질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 식생활을 통한 환경보전, 전통음식의 가치를 알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은 일반적인 식생활 태도와 환경, 건강, 배려의 녹색식생활태도를 향상시켜 실천 문제 중심의 녹색식생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 2) 식생활영역 인성교육요소 관련성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중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어서 식생활 영역에서 학생과 가족의 건강만을 생각하는데서 벗어나서 타인과의 관계, 사회, 더 발전적으로 인류, 자연, 생명에 이르기까지를 고려하게 하여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에 대한 인성교육을 골고루 강조하였다.

<Table 5>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생활’ 대영역에서는 식생활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인성교육 요소 중 자기 존중과 책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아침 결식, 다이어트, 인스턴트식품 선호, 섭식 장애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및 평가해 보고,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 기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이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식생활 문제가 진실성, 자기 존중과 책임과 관련이 있기에 자신의 식습관을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식생활의 문제가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비판하여 개인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식품 유통과정이 필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참여 의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어느 정도

Table 5.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food area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Unit	Sub-unit	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Life of Adolescence	Creating a healthy diet and eating	●	●	●	○	○	○
Practice of eco friendly family life	Creating an eco-friendly diet and food	●	●	●	●	●	●

Note. ● very closely related, ◎ closely related, ○ related

관련이 있다.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의 대영역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가정생활 영위능력을 기른다’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까지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명시하여 식생활 영역의 교육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개인의 존중에서부터 시민의식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중영역은 ‘녹색식생활과 음식만들기’이며 성취기준은 ‘녹색 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 건강, 배려의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영위하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 모든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녹색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 2010). 녹색 식생활 교육의 핵심가치는 환경, 건강, 배려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공정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하는 시민의식,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영역에서 학생들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자부심(존중)을 느끼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즉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여 음식을 제공한 농부와 매일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와 급식을 제공하는 모

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진실성을 갖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인성교육의 전 요소인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4. 의생활영역과 인성교육

##### 1) 의생활영역 인성교육 선행연구

현재 초·중등 교과활동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과별로 담당할 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주로 도전 및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교과서와 교수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와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를 위한 가치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Kim(2010)은 박물관 전통 의생활 교육이 문화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지닐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박물관의 전통의생활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Ban, Kim과 Lee(2011)는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전통 의생활 문화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문화’, ‘한복의 변천사’, ‘한복의 색채’, ‘한복의 문양과 소재’, ‘한복의 세계화’의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전통의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전통 의생활 전통문

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 전통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등 전통 문화 인식 고취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Kim과 Wang(2011)은 중학교 의생활 단원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감사 성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본 결과 효과적임을 도출하였다. 가정교과에서 도덕성이나 인성 관련 선행 연구가 대부분인 가족단위이나 식생활 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생활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의생활 영역이 과거 기능 중심만이 아니며, 인성 함양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 영역임을 규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다. 연구결과, 감사 성향 함양을 위한 가정교과의 의생활 수업이 효과적임이 판명되었다. 개방형 질문 분석에서도 수업을 통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사람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수업내용 구성이 좋았다고 하였다.

Lee(2012)는 고등학교 의생활 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의생활 문화’의 교육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FPSP)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수업을 실행한 후 학습자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습내용에서 추출한 인성 요소인 환경보존의식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FPSP)의 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추출한 자신감, 배려심, 협동심의 인성도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Bae(2012)는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을 중심으로 중학교 의생활 교육 수업설계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의생활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 콘텐츠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배양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시대의 요구, 학습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와 중학교 의생활교육 개선에 대한 교과교육의 요구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현대 우리나라 국가과 학기술체제와 의류학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생활이 문화 예술임을 재조명하여 의생활 영역의 교육이 문화 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함을 보다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결국 의생활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 2) 의생활영역 인성교육요소 관련성

가정교육에서 의생활영역은 주로 섬유, 실, 옷감에 관한 의복재료와 의복구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의생활교육은 부족한 수업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바느질 교육(sewing)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의생활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의생활교육에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s)와 더불어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의생활 교육내용이 생활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삶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나에 더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생활교육을 가치교육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통 생활 문화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가정과에서 전통 생활 문화 교육은 문화 교육적 측면, 교과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전통 문화의 산업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구축해온 독특한 나름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학교나 학습공간에서 실제적 과제의 수업을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형성해간다는 것과, 의생활의 지식과 기술은 섬유와 직물, 의복과 관련된 실제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 의생활의 섬유·직물·의복을 디자인하고 다양하게 제작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생활교육을 문화 예술 활동으로 정의(Bae, 2012)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육내용 중 인간의 가장 근접 환경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의생활교육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혼돈과 단절된 내용이 아닌 서로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좀 더 상호관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생활교육은 인성교육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

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를 인성교육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된 8학년에서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 영역은 전체 6개 대영역(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자기관리, 가족의 이해,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진로와 생애 설계)의 15개 중영역 중, 2개 대영역(청소년의 생활,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하에 2개 중영역(옷차림과 자기표현,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생활’ 대영역에 옷차림과 자기표현의 중영역이,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이라는 대영역에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의 중영역이 포함되어서 구성되었다. 특히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를 제시함으로써 배려, 예절 등과 같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생활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영역이 인성교육과 관련되지만, 조셉슨 연구서의 여섯 덕목 중에서 특히 진실성,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 영역에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배려심을 지닌 시민의식의 인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의복선택 및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이다. 이 영역도 모든 내용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친환경적인 의생활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의식 등의 인성이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 5. 주생활영역과 인성교육

#### 1) 주생활영역 인성교육 선행연구

가정과교육의 주생활에서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Choi(2012)의 연구가 유일하며, 대체로 인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주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코하우징’ 등 간접적으로 인성을 다루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Choi(2012)는 인성의 구성요소를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으로 보고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학

Table 6.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clothing area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Unit	Sub-unit	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Life of Adolescence	Clothing and self-expression	●	●	◎	◎	●	●
Practice of eco friendly family life	Eco-friendly clothing life and clothing reform	◎	●	◎	◎	●	●

Note. ● very closely related, ◎ closely related, ○ related

생들은 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배려심과 협동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Kim과 Cho(2001)는 유니버설 주거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와 학생들 모두 유니버설 주거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앞으로 유니버설 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Cho(2010)는 노인 주거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노인 주거 관련 수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와 노인 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어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Park과 Cho(2010)는 지속가능한 주거생활 관련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본 수업이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Park과 Cho(2009)가 환경친화적 주생활 관련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주생활 실천의지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업이 자발적 환경친화적 주생활 실천 참여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생활은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 환경이 끊임없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건강과 환경 및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유니버설 주거와 이웃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주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유니버설과 코하우징 주거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생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바람직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

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주생활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습득하고 지속 가능한 주생활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배려와 나눔 및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덕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주생활영역은 인성교육의 가능성이 충분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2) 주생활영역 인성교육요소 관련성

가정과교육에서 주생활영역은 ‘주거와 거주환경’과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2개의 중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주생활은 다양한 가족의 가치와 외부환경(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교육의 주제로 하고 있어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주생활에 대한 관점이 가족의 내부에서 가족의 외부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주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주거 유형의 이해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덕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Table 7 참조).

‘주거와 거주환경’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주거의 의미와 다양한 주거유형을 이해하고 가족의 형태, 가족생활주기, 생활양식 등 가족의 특성에 알맞은 주거를 선택하기 위한 안목을 기르며, 주거선택과 관련하여 근린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한다’에 있다. 여기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공존의 가치를 말한다. 공존의 가치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

Table 7.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housing area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Josephson Institute's 'Six Pillars of Character'					
Unit	Sub-unit	Trustworthiness	Respect	Responsibility	Fairness	Caring	Citizenship
Life of Adolescence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	●	◎	◎	●	◎
Practice of eco friendly family life	Sustainable living space and decorate the living space	●	◎	◎	●	◎	●

Note. ● very closely related, ◎ closely related, ○ related

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존중과 돌봄을 통해 형성된다. 즉 주생활교육에서 노인과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이 서로 다른 형태의 주거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나타나는 주생활에서의 다양성을 포괄적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용적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는 주거 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공간 활용 방법의 이해를 통해 기존의 건강한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 공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노인의 자립적 생활과 신체적 활동 장애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생활에 있어 가족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무성과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시 되면서, 유니버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 2001; Kim & Cho, 2010). 따라서 ‘주거와 거주환경’의 성취 기준은 타인을 존중하고,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는 존중 및 공감을 갖고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배려와 관련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한 공기, 열, 빛, 소리 등을 고려하고, 공간구획과 동선, 가구배치 등 공간을 다목적,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주거 공간을 개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에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균형을 전제하는 환경 보전의 개념을 포괄하며, 이는 진실성, 공정성 및 시민의식을 통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규범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주생활교육에서는 주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주거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적 의존관계임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동과 나눔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의 자발적 의도와 적극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효율성이 증가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은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 같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더불어 사는 이웃공동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Park & Cho, 2010; Park & Cho, 2009). 따라서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진실성,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규칙을 지키는 공정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협력 등은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덕목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교육에서 주생활영역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한 영역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주생활영역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주생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한다.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2012년 7월 9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국어, 도덕, 사회의 특정 과목에서 강조된 상황에서 가정과목이 인성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교육학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 가정교과의 교육 내용 및 성취기준과 인성교육 요소와의 관련성을 조셉슨 연구소가 제안한 덕목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가정교육학 제 분야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인간 발달 및 가족 분야에서는 인간발달, 인간관계, 결혼 및 가족 생활, 가족 돌보기;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분야에서는 시간·스트레스와 소비생활, 식생활 분야에서는 식습관, 가족 식사 참여, 인성교육관련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의생활 분야에서는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를 위한 가치교육, 인성교

육관련 의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주생활 분야에서는 유니버설 주거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코하우징 관련 주제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발달과 가족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고, 과학적 지식의 비중이 높은 식생활 분야의 경우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피급적으로 가정교과의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의 덕목과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은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관련한 진실성과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공정성, 또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덕목들과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주의나 가족이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도록 이웃과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은 청소년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책임있게 돌보며, 이러한 힘을 친구와 이웃, 사회로 확대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영역이다.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의 경우 책임, 존중, 배려와 시민의식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진실성과 공정성 덕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 중영역은 책임 덕목과 많은 관련이 있고 존중과 배려 덕목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소비생활’ 중영역은 주로 시민의식 덕목과 많은 관련이 있고 책임 덕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식생활영역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중영역의 학습 내용 및 성취기준은 진실성, 존중,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녹색식생활과 음식만들기’ 중영역의 학습 내용 및 성취기준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의 모든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생활영역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와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를 위한 가치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생활 중영역의 학습내용 및 성취기준은 모두 인성교육과 관련되지만, 진실성, 존중, 배려, 시민의식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중영역 또한 모든 내용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존중, 배려, 시민의식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생활영역에서 ‘주거와 거주환경’ 중영역의 학습내용 및 성취기준은 나와 다른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용적 자세와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중영역의 학습내용 및 성취기준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협력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인성교육의 덕목과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영역 중에서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이 인성교육 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인성교육 요소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보다 밀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동 덕목에 기초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하위 덕목 수준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덕 윤리학에 기초한 덕 목록 이외에도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한 독자적인 인성교육의 요소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특히 도덕적 품성의 기초 위에 사고에 머물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 추론능력과 판단력뿐만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을 이끄는 실천의지 등의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요소에 대한 후속연구가 시급히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병행하여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인성교육에 가정교과가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광범위한 보급이 뒤따라야 연구 성과가 확산될 것이다. 고등학교 가정 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초·중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인성교육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학의 성격에 비추어 가정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과의 역량을 확인하고 가정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교육학 연구자들이 인성교육의 제 영역 및 요소, 더불어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원리에 대한 심도있는 기초 연구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농촌진흥청 (2010). **2014-2014 식생활교육 기본 계획**.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33-01.
- 김태훈 (1997). 도덕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도덕윤리교육**, 8, 274-314.
- 남궁달화 (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유계숙 · 장혜경 · 전해정 · 김윤정 · 민성혜 (2009).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태명 · 이수희 (2010).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서울: 북코리아.
- 이미숙 · 이광우 · 박순경 · 정영근 · 김진숙 · 민용성 · 백경선 (2012).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 · 보완의 방향 및 시안**.
- 이은주 · 김정원 (2012). **녹색식생활 교육을 통한 아동의 인성교육**. 융합인재육성을 위한 초등실과교육의 역할과 과제 프로시딩, 139-167.
- 정범모 (2006). Crisis for character education and family culture.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3, 1-10.
- 허경철 · 조남심 (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 모형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 연구보고, CR 94-1, 56-80.
- An, Y. H., & Park, M. H. (2000). Adolescent consumers 's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2(1), 21-32.
- Bae, H. Y. (201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lothing life education program in middle school based on arts & culture education and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Bae, S. J. (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ating habit and personality or scholastic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an, Y. J., Kim, N. E., & Lee, H. J. (201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on clothing lifes to raise youth's awareness of traditional clothing cultur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17.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arr, D. (1997). 손봉호, 김해성 역. **도덕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Cho, Y. J. (2007). *Family meal and dietary qualit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Gyeonggi, Korea.
- Cho, Y. S., Kim, A. Y., Im, H. S., Sin, D. J., Cho, A. M., & Kim, I. J. (1998). Component factors of desirabl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8, 131-152.
- Choi, K. S.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kect learnong programs of a home economics subject for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a 'residential space utilization' unit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Chung, M. K. (2003).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home economics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6(3), 141-161.
- Chung, N. Y. (2011). The effects of creativity · humanity education with practicing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dietary life area in the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3), 27-58.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 (1973).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J. Viertel.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 McCarthy. Boston, MA: Beacon Press.
- Hyun, J., Choi, S., Cha, S., Ryu, D., & Lee, H.(2009).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RC-2009-09).
- Ji, S. R. & Lee, S. (2012). A study of depression i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Focusing on family structur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50(3), 1-14.
- Jo, S. M. (2012). *The effects on the prosocial behaviors in instruction of the unit, 「caring of family」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Kang, S. B., Park, E. S., Kim, G. S., Song, S. J., Chung, Y. K., Kim, Y. R., & Ko M. S. (2008).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Korea university institute education research*, 30, 1-38.
- Kim, E. J., & Lee, Y. S. (2009).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actical problem based lesson plan to improve self-leadership skills -Focusing on the unit of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35-54.
- Kim, E. S., & Cho, B. E. (2010). The application of a practical problem - Based lesson plan for the "Understanding Myself and My Family" unit to heighten awareness of gender - role equity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chor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77-94.
- Kim, H. S., & Kim, H. Y. (2007).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preferences, psychosocial factors and dietary habit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5), 511-518.
- Kim, J. A. (2005). *Relationship between food preference and personality trai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 Shin, H. W. (2012). The environmental-friendly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1), 37-48.
- Kim, K. S., & Park, M. K. (2000). A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2(1), 33-45.
- Kim, M. S. (2011). *The effect on dietary habits, personality and food neophobia by family meals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Y., & Cho, J. S. (2001).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into the LT lesson plan for the chapter "family life and housing".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1), 39-53
- Kim, S. G., & Wang, S. S. (2011). Development & the analysis of application effect of middle school HE text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in cultivating gratitude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2), 17-35.
- Kim, T. O. (2006). J. Habermas's Theory of Praxis and Educational Practice.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20, 83-113.
- Kim, Y. J., Choi, J. H., & Jang, S. O. (2008). A study o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ellular phon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nsumer education by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63-177.
- Kim, Y. J., Choi, J. H., & Jang, S. O.(2008). A study o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ellular phon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nsumer education by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63-177.
- Kim, Y. M. (2010). *A study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Traditional costume education in a museum*.

-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N., & Cho, J. S. (201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housing for the later life -in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1-19
- Ko, M. J., & Kim, Y. H. (2012). The effects of green foo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practical problem solutions to the dietary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5(2), 151-172.
- Korea University Institute Education Research (1997). **전환시대 청소년의 소비문화와 인성교육**. 바른교육 · 큰사람만들기 제 6회 포럼 자료집, 1-39.
- Lee, C. H., & Kim, J. S. (1997). A study on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of adolescents of cheju.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9(2), 161-174.
- Lee, E. J., & Lee, H. S. (2004).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167-176.
- Lee, H. J. (2001). *A Study of the directions of humanity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its educational program : centering on elementary school mor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J. H., & Cho, B. E. (2011).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focused teaching plans for teenagers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in the "Family life in old age" uni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3). 161-183.
- Lee, J. H., & Oh, K. H., & Chae, J. M. (2012). The influence of school consumer education on cellular phone consumption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87-99.
- Lee, M. J., Jin, E. N., Seo, M. C. et al. (2011). *A study on how to activat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subjects education and creative extra curricular activitie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RRC 2011-7-1).
- Lee, S. H. (2012). *The effects of eco-friendly clothing teaching through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FPSP) on creative character cultivation : Focusing on the 'home life culture' uni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for the high school first gra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Y. M., Lee, K. Y., & Oh, Y. J. (2009). The perceptions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wards family meals. *Journal of Korean Diet Association*, 15(1), 41-51.
- Min, G.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etary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Min, S. Y. (2004).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using meditation on the emotion and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0].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a).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1].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b). **밥상머리 교육**. 리플렛.
- Moon, S. H., & Chae, J. H. (2001). The effects of practical reasoning home economics instruction applied to food & nutrition units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oral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3), 119-130.
- Park, H. J., & Cho, J. S.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ssue-centered teaching learning process plan for environment-friendly housing education. *Journal of*

-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45-64.
- Park, M. J., & Kim, Y. A. (2010). Development of teaching model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classes. *Proceedings of the 2010 Win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25-66.
- Park, M. R., & Cho, J. S. (2010).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 for 'Sustainable Residence Created with Neighb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1-18.
- Park, H. J., & Chung, K. H.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ral indicator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 연구보고 RR 2001-1.
- Ryu, C. S., & Jin, H. S. (2006). Analysis of character virtue factors for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26(1), 139-166.
- Son, S. N. (1998). Humane bildung : Konzept , Inhalte and Richtung. *Journal of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Educational Studies*, 4(1), 67-84.
- Wang, S. S. (2004). The systematiz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2). 13-26.
- Wang, S. S.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이해**. 고려대학교 교육연수원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자료집.
- Wang, S. S.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등 가정과교육의 접근 방안. *Proceedings of the 2012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53-80.
- Wang, S. S., & Kim, S. G. (2011). The charact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 on gratitude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1), 117-142.
- Yi, H. J., & Chyun, J. H. (1989). Researc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 food preferences and personality traits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85-95.
- Yoo, T. M. (1991). *The need for a reconceptualization of a core curriculum in undergraduate home economics education: A theoretical-critical examination of major historical issues and practical concerns in the fiel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You, H. J., & Cho, B. E. (201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and practical performance assessment tools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teenagers children and their parents: focusing on conversation analysis of real conversation in UCC video projec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3). 139-160.
- Josephson Institute(2013). Available at <http://JosephsonInstitute.org>.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지 고찰하고,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의 요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내용은 2009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을 조셉슨 연구소가 제안한 존중, 배려, 책임, 신뢰성, 공정성(정의), 시민성의 여섯 기둥 덕목을 기초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전문가로부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인 인간발달과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의 인성교육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모든 영역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 인성교육 덕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간발달 및 가족 영역에서는 인성교육의 모든 덕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자기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중영역은 책임 덕목과 많은 관련이 있고 존중과 배려 덕목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소비생활’ 중영역은 주로 시민의식 덕목과 많은 관련이 있고 책임 덕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식생활 영역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중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녹색식생활과 음식만들기’ 중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의 모든 덕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생활 영역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중영역은 진실성,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중영역은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생활 영역에서 ‘주거와 거주환경’ 중영역은 나와 다른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용적 자세와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중영역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협력과 관련이 있다. 종합적으로 자기 관리와 소비생활영역의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은 인성교육의 일부 덕목과, 그 외의 모든 영역은 인성교육의 모든 덕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3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6월 14일